

<나의 삶 나의 하나님> 어떤 "바보 목사"

-이 창 순-

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사역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.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신문에서 '안구 기증을 바란다'는 광고를 보았습니다.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갔는데, 그 어느 날에는 이 광고가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'하나님께서서는 나에게 두 눈을 주셨는데, 하나를 나누어주어 한 생명이 광명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는가?'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, 그러나 마음에는 어떤 힘이 그를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. '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이 뭐가 있는가?' 오랜 생각과 기도 끝에 눈 하나를 기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

그런데 아내가 걸렸습니다. '이런 일을 나 혼자 결정해서 할 일이 아니잖는가? 부부일신인데 아내에게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'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어느 날 아내를 앞에 앉혀 놓고, 진지하게 하나 하나를 설명하면서, 결론적으로는 눈 하나를 빼서 기증하기로 했으니 동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. 이 말을 들은 사모님은,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'발발' 떨고만 있더랍니다. 남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사모님은, 그 결심이 그냥 한 번 해 보는 것이 아님을 알고, 결국은 동의하기에 이르렀답니다.

아내의 동의를 받고 난 이 목사는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. '육신은 부모가 주신 것인데 부모의 동의도 없이 이런 일을 한 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.'라고 생각하고, 어느날 아버님을 모시고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잘 대접한 후, 집에 모시고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결심을 차곡차곡 말씀드렸습니다. 아버님도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, 그 말을 들으시고 충격을 받으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앉아 계시더랍니다.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오래 지나갔습니다. 결국 아버님도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.

"네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결심했다니 내가 어떻게 반대하겠느냐?" 이 목사는 드디어 오려 놓았던 그 신문 광고에 기재된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. "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. 제가 눈이 필요하다는 광고를 보았는데, 아직도 눈이 필요하신지요? 필요하시다면 제 눈을 하나 기증하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는지, 어느 지정병원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" 전화를 받은 사람은 놀래 가지고, "아니,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?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실 때 기증을 해 달라는 것이지, 생 사람의 눈을 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. 그것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." 결국 이 '바보 같은 목사'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전화를 끊었습니다.

어느 신문에 난 이 이야기를 읽고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. '이 바보 같은 목사가 진짜 목사구나. 자기의 생 눈을 빼서 주려고 한 목사.... 사실은 예수님도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보가 아니시었던가?'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	'2001년 교회생활:QT하는 갈보리교인' 갈 보 리 교 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익명성 -명예
제 3권 39호	기초성경공부이수, 정장으로 예배, 남 이야기 금지	2001년10월14일
☎520-9464/021-292-1639, ☒10 Burleigh St(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)		

하나님께서서는...

- "불가능합니다" 라고 하면
"모든 것이 가능하다(눅18:27)" 라고 하십니다.
- "너무 지쳤어요" 라고 하면
"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(마11:28-30)"라고 하십니다.
- "아무도 나를 진정 사랑하지 않아요" 라고 하면
"내가 너를 사랑한다(요13:34)" 라고 하십니다.
- "더 이상 못해요" 라고 하면
"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(고후12:9, 시91:15)"라고 하십니다.
- "앞이 캄캄해요" 라고 하면
"내가 네 발을 인도하리라(잠3:5-6)" 라고 하십니다.
- "그것은 가치가 없어요" 라고 하면
"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치가 있다(롬8:28)"라고 하십니다.
- "저는 제자신을 용서 못해요" 라고 하면
"내가 너를 용서하리라(요일1:9, 롬8:1)" 라고 하십니다.
- "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어요" 라고 하면
"네 모든 필요를 채우마(빌4:19)" 라고 하십니다.
- "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" 라고 하면
"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(벧전5:7)" 라고 하십니다.
- "너무 외로워요" 라고 하면
"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(히13:5)"라고 하
십니다.

♡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...† ♡

주 일 예 배

영 광 송 Gloria	"Calvary" 1.3절: 다같이	다 같이
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		
용서의 선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	인 도 자
*찬 송 Hymn	28장	다 같이
*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	32(시편 143편)	
*신 앙 고 백 Apostle's Creed	사 도 신 경	
교 회 소 식 Welcome & Announcements		
찬 송 Hymn	487장	다 같이
기 도 Prayer		송정섭 집사
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	누가복음 18:18-23(신 126)	인 도 자
부부성가대 Couple's Choir		부부성가대
설 교 Sermon	"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"	김성국 목사
찬 송 Hymn	85장 (마지막절은입어서서)	다 같이
*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		인 도 자
*응 답 송 Response Song	'좋은신 하나님'	다 같이
*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		인 도 자
*축 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<10월 예배위원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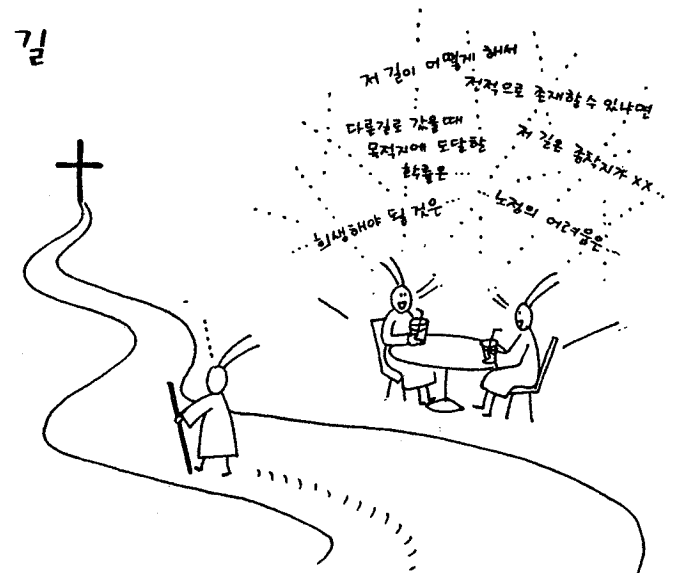
일자	주일기도	수요기도	헌 금 위 원	Tea Time	주 일 안 내
7일		김교섭	김시욱.장선주	김영길.김시욱	박일영.임혜자
14일	송정섭	김순자	김영길.신경화	김교섭.김성국	최윤희.송정섭
21일	신경화	김영길	김종건.지찬영	김종건.박일영	김교섭.정희자
28일	인치혁	김종건	박일영.임혜자	인치혁.최윤희	김종건.지찬영

'2001년 교회표어 "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" <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> 매일 QT(Quiet Time) 생활화	<등록규정> 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*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.
--	--

주일예배 12:00 | 수요일예배 7:30 pm | 금요일새벽기도: 6:00 | 학생.청년부: 토요일 4:00

- ### 교 회 소 식
- 연합부흥회: 18일(금)-20일(토). 저녁 7:30 <강사> 이재철 목사
<장소> Epsom Girls Grammar School
<세미나> 20일(토) 오전 10-12시. 갈보리교회당
 - 오늘은 식사친교주일입니다
 - 봉헌: 성가대 가운. 책
 - 윤형권.신영화 집사(새미)
☎ 838-4677 ☐ 1/41 Matuhi Rise. Henderson.
 - 기도해주세요
*박용태 집사 병환
 - 10월 교회력

	교 회 력	모임 및 행사
7일		Daylight Saving Time
14일		식사친교. 구역예배(12)
21일		연합부흥회(18-20).
28일		
30일	이삭줍기 봉헌	교사기도회



우리는 예수님의 길에 대해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.